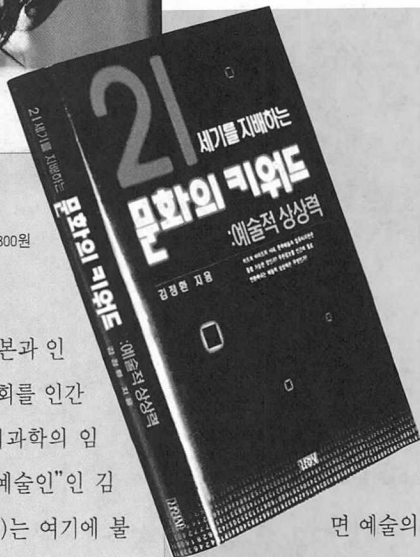


김정환씨

김영사/A5/356면/15,800원



“예술적 상상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문화의 키워드》 펴낸 김정환씨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환경에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룬 이 책은 그 가능성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든다. 문화와 예술이 횡적으로 넘쳐나는 정보의 평준화 현상에 깊이를 부여할 때 비로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환경이 인간을 위해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과 인터넷이다. 이들이 조종하는 사회를 인간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임무다. 하지만 “시인이자 종합예술인”인 김정환씨(48, 한국문학학교 교장)는 여기에 불만이 많다. 그가 볼 때 대부분의 과학적 사고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의 꿈무늬를 좇아다니기에 바쁘다. 따라서 이들의 ‘지시’를 따를 때 “삶은 희망이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명제에 도달할 길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유와 행동규범 제시해

김씨는 《21세기를 지배하는 문화의 키워드》(김영사)에서 새로운 사유와 행동의 규범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내놓고 있다. 그는 예술적 상상력만이 ‘비트’가 펼쳐놓은 가상현실의 성긴 그물망에 탄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소 도발적인 이 주장은 책의 서문과 결론에서 거듭 되풀이된다. 그런데 이 책의 어디를 펼쳐봐도 ‘예술적 상상력은 바로 이것이다’는 식의 명쾌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본론은 각종 문학작품과 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에 바쳐졌다. 대중가수 전인권, 세금고지서, 서정주론, 철학자에 대한 단상 등 장르 불문하고 “빠딱하게 읽기”를 시도한다. “잡담 스타일로 문화 전반을 스케치”하는 지은이의 독특한 글쓰기가 독자의 논리적 읽기를 교란하고 쉬운 해답으로 안착하는 길을 가로막는다.

“예술적 상상력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

니다. 요약과 범주화는 예술과 상극이기 때문이죠. 굳이 말하자면 예술의 기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가상현실에 사물을 확실히 언명하는 이데올로기가 넘쳐납니다. 반면에 예술은 현실을 가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상현실을 스스로 느끼게 하죠. 정보와 지식은 예술적 상상력을 통과해야만 인간적인 삶의 지혜로 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호하긴 마찬가지다. 예술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김씨는 그 의문에 ‘형식성’을 ‘내용성’으로 전화시킨다는 말로 답변한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5초도 안 걸려 관련정보가 검색됩니다. 검색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고유한 형식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내용과 깊이와 과정이 생략됐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형식성과 상호소통성이 오히려 인간사회를 비인간적인 정보의 평준화 과정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김씨는 요즘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판타지 소설과 컴퓨터 게임만 횡행한다면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결국 대중문화의 해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회를 투쟁 없고 인격 없는 개개인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문화적 확산력은 예술을 발가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소프트웨

어만 있으면 컴퓨터로 음악과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소설이나 시 같은 문자예술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와 정보의 이합집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짜깁기가 판을 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김씨가 인터넷 정보혁명에 무조건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현상들이 예술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과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바꾼다. 오직 가시화할 수 있는 ‘미학적 깊이’만이 예술의 유일한 경쟁력으로 남은 셈이라고 김씨는 예술을 둘러싼 현상상을 정리한다.

에로티시즘에서 가능성 찾아

“역사상 이렇게 메타 예술적이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미술, 문학에 대한 문학, 춤에 대한 춤 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 집니다. 마치 예술의 생애가 거대한 주기를 한 차례 끝내고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본질적인 기원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는 예술의 깊이를 옹호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소(藝術素)로 에로티시즘을 든다. 에로티시즘이란 정신과 육체의 하나됨, 육체를 향한 정신의 열림이기 때문이다. 열린 육체는 정신에 포지티브한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의 긍정과 전망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에 머물러 있는 예술을 일깨워 적극적인 창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 강성민 기자